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동굴 속에서의 기도

(시편 142:1-7)

본 시는 다윗이 고독과 두려움의 순간에서 엔게디 굴에 숨어 환난을 피할 때 드린 기도시입니다.

### 1. 다윗의 애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소리 내어 외치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는 굴속에서 홀로 마음껏 소리 질러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은 다윗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만큼 기쁨을 주었습니다.

### 2. 주께서 내 처지를 아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울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자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입니다(3절).

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의 덫 속으로 파묻혀 있었고, 무고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보호하지 않았고 생명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의 자신의 고백을 상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시 16:8). 사람의 도움은 없으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 3. 주는 나의 분깃

다윗은 동굴 속에서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 ① 주는 나의 피난처이요(5절)
- ② 주는 나의 분깃이라(5절)
- ③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시며(6절)
- ④ 하나님은 나의 해방자시라(7절)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 동굴의 감옥에서 자유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 4. 다윗의 전망

다윗은 비록 자신의 미래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집을 떠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분깃으로 삼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고 미래에 의인들로 둘러싸일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A prayer in the cave

(Psalm 142:1-7)

Psalm 142 is a prayer that David lifted up as he was hiding in the cave of En Gedi and that kept him from affliction during his moments of loneliness and danger.

### 1. David's plea

The psalmist cried out loudly before the Lord in the midst of his trouble and entreated the Lord for help. He raised his voice in prayer as much as he liked; which made his prayer memorable for a long time.

### 2. The Lord knows my plight

Because David was confident that the Lord knew where the snare was hidden and believed that the Lord could help him, he told the Lord his trouble (v. 3). He was buried under immense pressure, and persecuted without any guilt on his part. Nonetheless, there was none who showed him pity, expressed any concern, or cared for his life. During that time, David remembered his own confession in Psalm 16,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Psalm 16:8). This meant that there was no one he could depend on for help except the Lord.

### 3. The Lord is my portion

David looked to the Lord even when he was lonely and in the midst of danger in the cave. The Lord was all that he needed.

- (1) The Lord is my refuge (v. 5).
- (2) The Lord is my portion (v. 5).
- (3) God is my rescuer (v. 6).
- (4) God is my liberator (v. 7).

Above all else, David wanted to be free from this prison of the cave in order to worship and praise God to his heart's content.

### 4. David's prospect

Even though David himself could not see his future, he believed that God would lead him well. He left his home and didn't have any possession, but he was satisfied with setting God as his refuge and portion. Because of God's goodness, he was no longer lonely, but believed that he would be surrounded by righteous men in the future.

### My beloved Christians!

Jesus was completely alone on the cross, but God did not abandon Jesus Christ to the grave. Likewise, just as God has done for Jesus, Jesus himself will never abandon us. By setting God as our portion in adversity,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God's success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10년 홍해작전

## 6월 6일(주일) ~ 25일(금) 새벽 5시

6월 6일(주일)부터 시작되어 6월 25일(금)까지 계속되는 2010년 홍해작전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29, 시 37:4)이며 부제는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함으로써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국난의 때에 민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타락된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에 서울교회 성도 모두는 분연히 일어나 어두운 이 땅의 새벽을 깨워야 할 것이다.

2010년 홍해작전은 6월 6일(주)~12일(토)은 송용원 목사, 6월 13일(주)~19일(금)은 조진모 목사, 6월 20일(주)~25일(금)은 오덕교 목사로서 나뉘어 진행된다.

2010년 홍해작전은 강사들의 주옥같은 신령한 말씀과 더불어 실행위원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로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실족치 않고 건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2010년 홍해작전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바란다.

**송용원 목사**(연세대, 장신대신대원(M.Div.) 예일대(S.T.M.), 에딘버러대(Ph.D.Candi.)), **조진모 목사**(연세대, Trinity Christian College, 웨스트민스터(M.Div., Th.M., Ph.D.), 합신대 교수), **오덕교 목사**(총신대, 총신대신대원(M.Div., Th.M.), 웨스트민스터(Ph.D.), 합신대 전총장)가 강사로 인도할 예정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여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

# 서울교회 성도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 - 전 세계 신학자와 목회자들 축하전문 쇄도 -

이종윤 목사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명예 신학박사 학위수여식 소식이 웨스트민스터로부터 공식 발표된 이후 교계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세계적 명문신학교요 더욱이 이 목사의 모교로부터 그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스위스, 화란,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도처에서 쇄도하고 있다.

이 영광은 이 목사님만의 영광이 아니요 그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과 그를 존경하는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상급이라 한다. “이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분이 은퇴하시면 누가 그분과 같은 인격과 영성과 지도력을 갖고 한국교회와 신학을 이끌어 갈지...” 한신대학교 전 총장 오영석 박사의 글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린다.

##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남녀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 열린 도서관 봉사부원 모집

도서관에서는 월요일-토요일(평일 : 오전 10시-오후 10시, 주일 : 오후 2시-오후 5시)에 봉사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찬호집사 010-6348-5155

## 한티공원 새단장 하다



# 제11대 집사 53명, 제10대 권사 51명 각각 피택되다

## 5월22일(토)부터 교육시작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제11대 집사, 제10대 권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결과 제11대 집사로 53명, 제10대 권사로 51명이 각각 피택되었다. 이번에 피택된 이들은 5월22일(토)부터 시작

된 15주의 교육을 마친 후 11월28일 교회설립기념주일에 임직을 하게 된다. 피택자들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기도한다. 피택자 명단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 드려

- 주제 : 세계선교의 어제 · 오늘 · 내일
- (오늘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라: Witness Jesus Christ Today!)
- 일시: 6.22-24(서울), 25-27(인천), 7.4-5(부산)
- 5월 30일 (주) I, II, III 부 예배 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를 위한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이 5월 30일(주) 예배 시에 있다.

이번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의 주최, KAM은 한국선교신학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로잔위원회, 김치

(KIMCHI), 세계선교연구원(CWM),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산세계선교협회 의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졌다.

KIMCHI 세미나 특별헌금은 1 구좌를 10만 원으로 하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그 이하도 가능하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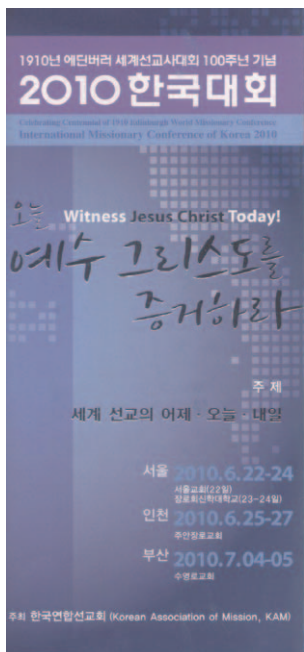
송용원 목사



조진모 목사



오덕교 목사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하나님을 기쁘시게!

호국 보훈의 달 6월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6월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졌던 것같이 국가, 교회, 가정,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원합니다.

2010년도 홍해 작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29, 시 37:4)'라는 말씀을 주제로 현충일인 6월6일 주일 새벽부터 6월25일(금) 6.25사변 기념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세분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7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

고 경제 불황,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 선거 과열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부딪치는 소리로 시끄럽고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시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며 다 함께 홍해 작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직면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입니다!**  
**6월6일 주일 새벽 5시 서울교회로...**

(홍해작전 본부)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언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이경희3 집사(13교구)



따르릉~, 전화기 속에서 동생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조직검사 해 봐야 알겠지만 큰언니가 암일지 모르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당시 저는 암에 걸

릴 수도 있는 언니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언니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며칠 남지 않은 홍해작전이 생각났습니다. 원래 새벽기도를 연중행사로만 여겨온 제게 하나님께서 큰 과제를 던져 주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의 상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에 어떤 죄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이 긴 날 동안 바다를 건너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예수



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서울교회에 등록 하는 일조차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부족한 저로서 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만 믿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언니가 암 진단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내가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새벽기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새벽기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며 간절한 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민하던 남편도 죽음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은 벅찼지만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갈 생각을 하니 은근히 부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지’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 <2010년 홍해작전 기도제목>

- 1. 우리 앞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천국시민을 양성하며,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4.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주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5.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주님!**  
아가페 타운을 완공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서울교회 이웃사랑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 6.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주님!**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향도해 나가게 하옵소서.
- 7. 가정과 나라의 소망이신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며, 의와 평강의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고 있지만 그때도 제게 넘치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홍해는 선택받은 자만이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건너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 걱정했던 저도 하나님과 함께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경희야 기도 좀 해봐~”하고 어린아이처럼 전화를 합니다. 저는 언니의 목소리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언니에게 전해짐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며 감탄합니다. 지금은 건강해진 몸으로 직장까지 잘 다니고 있는 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제11대 집사, 제10대 권사 피택자 명단

## 집사



## 권사





# 이종윤 목사와 웨스트민스터

순례자는 오는 27일 이종윤 목사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음에 즈음하여 이종윤 목사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다시금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창립 이래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종윤 목사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수없이 들어왔다. 20대의 청년 신학생 이종윤이 평생의 신학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준 학교,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곳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1929년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신학교다. 이 신학교가 개교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미국 신학계에서 주류를 이루던 칼빈주의 신학과 그에 맞서 20세기 초엽부터 범람하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그 진양지는 '장로교의 어머니'라 불렸던 프린스턴 신학교였다. 프린스턴은 개교 이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와 신학의 표준으로 삼고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했지만, 자유주의에 물든 인사들이 학교 이사와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보수적 신앙이 점차 퇴색해갔다.

이에 맞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마침내 프린스턴 신학교를 뛰쳐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다 철저히 따르며 성경무오설에 근거한 정통 성경적 신학을 굳게 지킬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청년 이종윤은 반틸 교수의 문하에서 끈끈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어가며 정통 보수신학의 파수꾼이 되어 갔다**

바로 웨스트민스터였다. 학교 설립을 주도한 교수들 가운데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1895~1987) 교수가 있었다. 그는 변증학 교수로서, 기독교 정통 신학 수호에 크게 이바지한 신학자다. 청년 이종윤은 이 반틸 교수의 문하에서 끈끈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어가며 그도 정통 성경신학의 파수꾼이 되어 갔다.

매 학기 과목당 1,500페이지 이상의 독서, 매주 500개 이상의 히브리어 단어 암기 등 웨스트민스터 교수들이 요구하는 학습량은 신학생들에게는 가혹한 분량이었다. 이 목사는 이를 소화하고자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다가 급기

야 새벽에 기숙사의 세면장에서 졸도하여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처럼 사투에 가까운 노력을 하던 이종윤 목사는 반틸 교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기말 리포트로 냈다는 칭찬과 A+학점, 그리고 교수의 친필 사인이 적힌 책을 상으로 받기도 했다.

1971년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유럽의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온 이 목사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국 교계의 거목으로 커간다. 그 후 30여 년간 웨스트민스터의 가르침을 토대로 철저히 정통 보수적 신학에 입각해 목회와 학문적 활동을 해온 이 목사는 2004년 한국기독교사학회로부터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됐고, 2006년엔 한

국교회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주기도와 100년 가까이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새번역위원장을 맡아 새번역을 완수했다. 특히, 사오분열된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헌법에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착안해 장로교의 정체성 회복과 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의 날' 창설을 주도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 발전과 신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윤 목사는 2008년도 장신대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오는 27일 웨스트민스터신

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또 한번 받는다. 박형룡, 박윤선 목사를 비롯해 정통 보수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수많은 한국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를 거쳐 갔고, 현재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모교로부터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20년을 달려온 서울교회의 정체성은 이종윤 목사를 매개로 웨스트민스터의 개혁주의 신앙 전통과 보수적 신학의 자양분을 먹으며 형성돼왔다는 점에서 이종윤 목사의 명예신학박사 학위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기초를 마련한 교수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  
(Pentecost)**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흔히 '맥추절' (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 (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였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

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다. 결국 이 날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다.

제8회 교구찬양대회를 마치고

# 명품교구, 9교구

윤종덕 집사(9교구)



9교구 구성인원 적으며  
예배당 가깝지 않아도  
연일 교회일로 바빠서  
세상 친구들 못봐도  
성수주일 하느라  
산이나 바다를 못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



비록 교회와의 거리는 가깝지 않으나, 평범함을 거부하는 9교구는 우리교회에서 추진하는 하나님 사업에 1등이 되기 위해 항상 적극적입니다. 특히 교구 찬양대회 때에는 늘 독특한 의상과 울동으로 성도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연세가 60-70대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쁨으로 젊은 성도들과 하나 되어 빠른 템포의

장로님이 다섯분이나 계신 9교구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꽃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교구입니다.

제8회 교구찬양대회를 마치고

# 주님과 동행하는 5교구

박준의 성도(5교구 청년 1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교구를 소개합니다. 저희 5교구는 관악, 동작, 과천, 안양, 평촌, 의왕, 산본, 수원, 안산을 포함한 시화 지역까지 서울의 남쪽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모여진 교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심으로 가득한 5교구는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도 개의치 않고, 흥해 작전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행사에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참석하여 봉사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구입니다.

우리 5교구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것을 맡기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연세 높으신 권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교회를 섬기는 열심에 청년인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교구 찬양 대회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하는 5교구 가족들의 결심의 고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모든일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그 안에 하

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5교구 가족들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5교구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소망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토록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5교구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 찬양대원의 4중창(정동호, 서대원, 이정명, 이규영)으로 드린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서 "주가 축복하리라(M,Wilson곡)"외 두곡으로 찬양드린다.

찬양에 맞추어 열심히 울동연습하시는 모습을 통해 교구에 속한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비록 음악적 수준이 최고는 아니어도, 동작이 완벽하진 못해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교구 식구들을 바라보며 서로 힘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연습 참여인원 70명에 대회 참석인원 70명인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9교구! 우리 교구식구들은 이번 교구찬양대회에서 사랑상을 받아 매우 기뻐지만 사랑상 보다도 오랜기간 연습을 하며 나는 성도의 교제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9교구가 서울교회내 가장 분이 되는 명품교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5일(화) 미국 필라델피아로 출국하여 27일(목)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29일(토) 귀국한다. 우리교회에서는 오정수(이영희), 성준경(장낙희), 이영기(이영숙), 신용식(김신영) 장로와 권사가 학위수여식에 참여하여 축하한다.
- 성기운 성도(9교구 성준경 장로 장낙희 권사 장남) 카이스트(KAIST) 공학박사 학위 취득
- 독창회 : 김문영집사(예루살렘 지휘자) '봄의 사랑 노래' 5월 27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 득녀 : 김경철 집사, 백송희 집사(11교구)
- 주간식당 봉사 : 안드레산교회(5월23일) 베드로산교회(5월30일)
- 금주의 식사 : 김상식집사, 이순례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흥해작전에 받을 은혜와 세우신 강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핵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외시는 길

